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통하여 듣는 주님의 음성듣기 (2) (4/29/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1 장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과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멸시함” 3-5 절

고전 13:2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전 1:2 -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8 -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3.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고상한 말로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해박한 지식과 고상한 말이 그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심오한 정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심령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 실제로 낮아져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를 줄줄이 다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의 금언들도 빠짐없이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외에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됩니다”(전 1:2). 세상을 멸시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과 해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고전 13:2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이 때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알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헛되다. **전 1:2 -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삶이 헛된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한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전 12:13 -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퀴나스는 “헛되다” 라고 말한 전도서 저자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헛된 것인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부를 추구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명예를 탐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기 자신을 높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육체의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엄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신속하게 지나가 버릴 일들에 대해서 연연해하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 말씀과 해설:

곧 사라질 물질에 매달리는 것, 명예와 칭찬을 원하는 것, 육체적 욕망, 선한 삶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 오직 현세적인 삶만을 생각하고 장래의 일,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 금방 지나갈 일들에 연연하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헛되다.

5.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전 1:8)라는 잠언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각적인 것들을 좇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말씀과 해설:

우리의 육신적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한다.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따라야 한다. 육신의 감각에만 매이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된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사도바울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롬 8:5-8** -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나의 온 존재로 주님을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육신의 정욕을 좇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좇으며,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2.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3. 세계 선교 현장을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